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중년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보니 '중년'이나 '노년'을 내세운 단체에서 간혹 강연 의뢰가 들어온다. 이번에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15일)에 기념 강연을 해 달라고 한다.

내가 노인 전문가도 아닌 데다 노인에 관해 연구한 적도 없어 함참을 고민하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내 어머니가 70이 되셨을 때부터 90으로 작고하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또한 그 마지막 1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늙어 감을 직접 본 터라 노년에 대해서 몇 마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늙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나는 '수분 감소'라고 즉시 답할 것이다. 싱싱한 무가 수분이 빠져면서 구멍이 송송 뚫렸다가 결국 먹 수 없게 되는 것과 사람의 체중이나 머리의 크기가 늙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부쳐

어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줄어드는 현상은 결국 수분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순이 되신 어머니는 내가 욕심만 댔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해 보겠노라고 노래를 하셨었다. 어머니는 가시고 이제 그의 막내딸은 당신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셨던 욕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내 인생에 욕심이라는 숫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며칠간 내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기력이 없어져서 걸음도 못 걸으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온갖 걱정과 불안이었다. 학문적으로 그러한 증상을 이미 노화 불안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늙음에 대한 불안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 20% 안에 내가 포함된다. 국가에서 노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노인이 되어 본 사람들의 조언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년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신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움직임이다. 마땅히 움직임 일이 없으면 산

책 등의 운동도 좋다. 과도한 음주나 흡연도 줄이라고 한다. 젊었을 때 많이 좋은 것들만 찾았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애써 찾아서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퇴임과 더불어 경제적 소득은 줄어드는데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니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노년이 되면 체력이 감소하고 질병이 증가하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됨은 당연한 현상이다. 게다가 자녀들은 모두 짝을 찾아 떠나니 빈 동자에 남겨진 부모들은 공허감과 허탈함에 우울증을 겪게 된다.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심도 있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욕심을 앞둔 나는 늙어감에 조금 더 관대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늙는다는 것이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터득한 경험과 지식으로 풍채진 지혜의 보고가 될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동양 고전 중 하나인 '맹자'의 '양혜왕' 편에서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남의 노인까지 섬기고, 내 어린이를 사랑하고 남의 어린이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늘 찾아다니는 인문학 특강의 내용 또한 모두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 '은근지신' 하라고 한 것 아니었던가.

종교칼럼



김경영
광주원음방송 교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방향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듯이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군가가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먹기'라고. 그런데 바로 이 마음먹기는 바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지나에 따라 같은 어려움도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고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면으로 인해 외로운 섬에 유배된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감옥의 창을 통해 사냥개 부서지는 파도와 갯벌의 황랑함을 바라보면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고, 다른 한사람은 그 창을 통해 맑은 하늘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냈다. 세월이 지나 다시 정권이 바뀌고, 이들의 귀환을 위해 배가 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은 기력이 쇠진한 노인이 되어있고, 한 사람은 건강하면서도 인자함과 지혜로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이 넘치는 성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렇듯 자기 앞에 마주하는 환경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한다. 일체유심조를 설명할 때 원효대사의 해골 물 이야기를 한다.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길을 가다가 인적이 드문 산골에서 날이 저물게 되어 허전한 움막을 찾아 밤을 지내게 되었다. 자다가 목이 말라 밖으로 나와 물을 찾다니다가 마침 하얀 그릇에 담긴 물이 달빛에 어스푸레 보이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이 물그릇을 들어 달게 목을 축였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행장을 차려 나서면서 다시 목이 말라 어제 물을 마셨던 곳을 가보니 어젯밤 마셨던 물그릇이 사람의 해골이었다. 원효대사는 갑자기 비위가 상해 구토증을 느끼게 되는데,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어젯밤에 달계 마셨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비위를 상하게 하는 해골 물이구나. 물은 같은 물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이것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기에게 만족을 갖기 보다는 불만을 갖고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 버린다. 나라 탓, 지도자 탓, 부모 탓, 사회 탓 등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으로 예외될 수가 없다. 단 예외가 있다면 자신이다.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여건이 나쁜 것이다.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알고 보면 부모 탓이거나 조상 탓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불만이 쌓이

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되기 쉽고 때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픈 충동을 갖게 된다. 살다 보면 그런 충동과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 세상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꽃동네에 가면 최귀동 노인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언어먹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도 신의 은총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최 노인은 구결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처지이지만 구결할 능력도 없이 허거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밥을 벌여다가 먹였다. 최 노인의 이러한 삶이 오운진 신부를 움직였고, 후원자들을 감동시켰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당겼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민 1891~1943)께서는 '한 마음이 착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니,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하셨다.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환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으며,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성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음은 자신의 조물주다. 내가 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그로 인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문구 중에 '원망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말이 있다. 이해는 쉽지만 참 행동으로 옮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큰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하고 하고 또 하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 능히 내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고

목숨 건 5·18 취재 기록, 일본에서도 반향 컸다



다케다 하지무
아사히신문 기자(오사카 본사)

아사히신문은 지난 5월 27일자 석간 1면 머리기사로 41년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현지에서 촬영한 본지 기자의 사진 필름 247컷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촬영자는 당시 오사카본사 사진부 기자였던 아오이 가스오(2017년 작고) 씨로, 그는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사이토 다다오미(2014년 작고) 씨와 함께 1980년 5월 19~23일, 27~28일에 광주시내에 들어가 취재를 감행했다. 컬러 사진이 57컷이나 포함된 이 필름들은 그야말로 목숨 건 취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발행부수 약 500만 부의 전국 신문이며 도쿄·오사카 등 4개 본사 체제로 지역색을 반영한 지면을 편집하고 있다. 물론 공통의 기사도 많지만 1면은 도쿄나 오사카 등 지역 본사마다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전국이 모두 똑같이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그만큼 이번 사진 발견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의 호응도 대단했다. 일본에서는 '광주사건'으로 불리는 5·18은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역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불러일으킨 데는 두가지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2018년 일본에서도 개봉해 히트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태

로 광주로 잠입 취재해 인권 침해 실태를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택시운전사의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놀라움과 감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영화로 인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무척 많아졌다.

다른 하나는, 지난 2월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깃뚫히는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군이 자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면서 41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탄압과 그에 저항한 사람들의 존재를 상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석간 기사가 실리기 전날인 5월 26일자 아사히신문 중간에는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사람들과 광주 사람들 사이에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서울지국판 기자가 실렸다.

이런 도양이 형성된 상황에서 컬러로 생생하게 5·18을 담은 사진이 나타나 일본 독자들은 충격을 받은 동시에 그 의미와 중요성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사진의 발견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서 일본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름이 왜 이제야 발견됐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980년 당시 필름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필름은 촬영자에게 돌려주는 관행이 있었다. 퇴직 후에도 사진사로 활동한 그는 자택 2층 다락방에 필름을 보관해 왔다. 그는 2007년 사이토씨와 함께 호남대에 초청돼 강연하면서 사진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필름 보관 장소를 가족에게 미처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그의 두 자녀가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필름을 발견해 본사에 연락했다. 그 우연이 없었더라면 필름은 지금도 남몰래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오이씨와 사이토씨가 왜 1980년 5월 19일 간박했던 시기에 광주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언급해 두고 싶다. 두 사람은 당시 아사히신문의 창간 100주년 기념 기획 '세계 30만km 한국편' 취재를 위해 우연히 한국에 입국했었다. 5월 18일은 동해안 속초에 있었지만 서울지국장으로부터 '광주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광주에 들어갔다. 그 전날 서울에서 직접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한 일본 미디어 기자가 검문에 걸려 쫓겨났으므로 일반 버스를 이용한 것은 일종의 '도박'이었다고 한다. 5월 23일 광주를 나설 때는 산길을 걸어 검문을 통과하고 소형 트럭을 소유한 농부에게 간청해 서울로 돌아와 미국 통신사 회선을 빌려 송고했다. 사이토는 회상록에 '어떻게든 이 참상을 일본에, 세계에 전해 달라'고 하는 현지 의사의 말이 마음에 있었다고 적었다.

필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선배 기자의 용기와 사명감에 감명받은 동시에 당시 한국인들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를 들면 검열로 인해 당시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위엄을 무릅쓰고 많은 사진을 남긴 한국 기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 서울에서 손으로 쓴 전단을 뿌리고 분신자살하는 등 자신의 신체를 미디어로 삼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려던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있었던 사실도 새로 알 수 있었다.

이번 석간 기사에는 지면 관계로 5·18 때 외국 기자들이 했던 역할만 조명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인 스스로의 노력의 궤적도 일본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아사히신문은 현재 필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인류의 유산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중이다.

社說

'예비타당성조사' 국가 불균형 초래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기준인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예타)가 오히려 국가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은 아니다. 예타 제도는 IMF 직후인 1999년 사업성 없는 지출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도입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 측면에서 효율과 경제성을 증시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오히려 잘사는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 특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불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일보가 예타 도입 이후 지난 해까지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전수조사 해 보니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타를 통과했거나 면제된 280조 원 (618건)의 사업 가운데 호남 비중은 14.6%에 그친 반면 수도권 (35.0%)과 영남권 (26.5%)이 61.5%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국가 재정이 집중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컸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SOC사업 중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한 사업의 78%가 비수도권인 데 비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82%는 수도권이었다.

정부도 이 같은 불합리성을 깨닫고 최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 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하는 등 표준 지침을 개선했다. 하지만 지역낙후도지수 지표만 늘렸을 뿐 가장 중요한 지역 낙후도 비중은 높이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예타를 개선해 쇠락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미국 5월 관련 외교문서 적극 공개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실세였다는 사실이 최근 미국의 문건 공개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사실상 광주 학살을 기획하고 자행한 군부의 최정점에 그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옛그레 미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 (14건, 약 53쪽)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 등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내용이다.

이번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더라 '무력한 대통령' (helpless president)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전두환이 국정은 물론 군부까지 틀어쥐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반란으로 왜곡했던 계엄군부의 선전과는 다른,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도 있다. 당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딕 크리스티안 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지역감정에 의한 사태가 아니고, 광주가 폭도에 의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전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어찌 됐든 미국 측은 꾸준히 5월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80건의 공개를 요구했고 미국은 지난해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에서 발표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 체계에 관한 내용은 담은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군부대 이동 상황이나 국방 관련 현안 등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 측의 보다 과감한 정보 공개를 기대한다.

無等鼓

"집중력은 자신감과 같행이 결합하여 생긴다."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의 말이다. 컨트롤의 마법사 그레그 매덕스는 "위대한 투수를 만드는 것은 팔이 아니라 두 귀 사이에 있는 뇌다"라고 했다. 토틸 사커의 대명사 요한 크루이프는 "공을 잡으면 내가 주역이고 결정하는 것은 나다. 즉 창조하는 것은 나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의 명언을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오랜만에 다시 스포츠 기사를 편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스포츠면은 가독성이 높아 전국의 편집기자들이 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는 좋은 장이다. 또 하나의 필드라든가 그 하이라운드다. 따라서 파머의 집중력과 매덕스의 사고력 그리고 크루이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광주일보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관련 편집이 강했다. FIFA 월드컵 토틸로 형상화한 '거센 검은 돌풍, 지는 아트사커, 축구의 신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자 영국의 '브렉시트'와 연결해 보는 제목 '메시트', 이강인이 대한민국을 U-20 월드컵 결승으로 이끈 날에는 '2강 in', SK가 최강 두산울 꺾고 한국

시리즈에 우승했을 때 신문을 장식한 'SK 뒤집다 KS' 등등.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찬사를 받은 제목과 편집들이다.

스포츠면을 편집하다보면 사진 검색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사진은 주목도가 높아 지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목 또한 사진이 들어가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편집기자들은 좋은 사진을 고르기 위해 날마다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손흥민이나 류현진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외신과 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천 장의 사진을 뒤적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침에 배달된 여러 신문을 비교

하다보면, 제목에서 한 수 뒤졌을 때보다 사진 선택에서 불명예를 때가 더 마음이 아프다.

사각의 신문에는 동근 세상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가 생생하게 전달된다. 그라운드의 열기와 스코어보드의 치열함까지. 뜨거운 감성과 냉철한 이성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며, 때로는 창처럼 날카로운 제목으로 때로는 시(詩)보다 부드러운 제목으로 독자와 교감하는 것이 편집기자의 역할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